

인터넷 음악서비스의 가시화와 전망

유 선 실*

News

세계적인 메이저 음반사들이 인터넷음악서비스를 위해 설립한 PressPlay와 MusicNet이 2001년 4/4분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준비중에 있다. 이는 본격적인 인터넷음악서비스의 개시라고 할 수 있는 데, 본 글에서는 이에 대한 전망과 국내시장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Plus

1. 메이저 인터넷음악서비스 업체의 경쟁과 서비스의 내용

현재 인터넷음악 서비스 시장에서는 PressPlay¹⁾와 MusicNet²⁾이 양 진영으로 나뉘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특히 두 업체에는 인터넷컨텐츠 제공을 위한 기술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Microsoft와 RealNetwork가 각각 참여하고 있어 인터넷컨텐츠 시장 전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PressPlay와 MusicNet의 가장 큰 차이점은 PressPlay가 소비자 대상의 인터넷음악 서비스에 주력하는 데 비해, MusicNet은 소비자들에게 직접 온라인 음악을 판매할 계획이지만 이와 함께 BtoB 업체로서, 기술 라이선스 및 온라인 음악을 위한 플랫폼을 온라인 소매유통업체에 판매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산업연구실 책임연구원 · E-mail : sunsil@kisdi.re.kr

1) PressPlay는 Vivendi Universal의 Universal Music과 Sony Music이 2001년 2월 합작하여 설립한 Duet의 변경된 명칭이다.

2) MusicNet은 RealNetworks, AOL TimeWarner의 Warner Music, EMI, 그리고 Bertelsmann의 BMG가 2001년 4월 설립한 합작사의 명칭이다.

< 표 1> 메이저 인터넷음악서비스 업체 비교

	PressPlay	MusicNet
참여 음반사	Universal Music, Sony Music	Warner Music, EMI, BMG
기술 및 플랫폼 제공	Microsoft, MP3.com	RealNetworks, Napster
주요 온라인유통 채널	MSN, Yahoo, MP3.com	AOL, Napster
기 타	소비자 대상 인터넷음악 서비스에 주력	음반사들에게 인터넷서비스 기술을 제공하는 BtoB 추진

Vivendi Universal과 Sony가 반반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PressPlay는 Microsoft의 MSN과 Yahoo, MP3.com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빠르면 10월 중순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PressPlay는 7만~10만 곡의 음악을 가입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usicNet은 올 가을부터 Christina Aguilera, Janet Jackson, Madonna, Eric Clapton 등의 음악 10만 곡을 서비스할 예정이며, 월 이용요금은 50곡 내려받기와 50곡 인터넷 방송에 10달러로 책정됐지만, 배급업체들이 최종 요금을 결정하며 다른 서비스를 추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MusicNet 이용자들은 다운로드 받은 곡을 자신의 PC에서 휴대용 기기로 녹음하거나 복제할 수는 없도록 할 예정이다.

2. 인터넷음악서비스의 합법화 노력

현재 음반사들의 인터넷음악서비스를 가로막는 장애 중 하나는 음악출판사 및 작곡/작사자 등 관련 단체들과의 저작권문제이다. 아직 음반사들은 음악의 취입 및 연주 때마다 작곡가의 로열티를 징수하는 주요 음악 출판업체들과 라이선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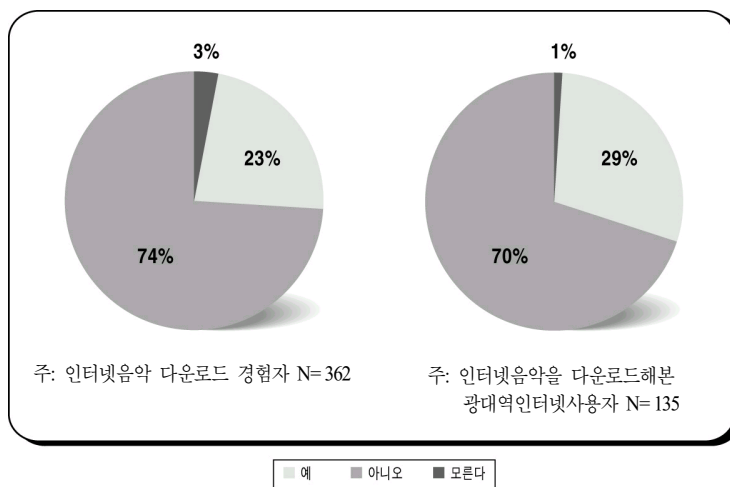
그러나, Napster의 저작권해결의 예에서도 보듯이 조만간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Napster는 음악 제작자와 저작권자에게 2,600만 달러를 보상금으로 지불하고, 또한 서비스를 위해 Harry Fox Agency에게 1,000만 달러를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번 합의대상에는 NMPA와 이 협회 라이선스 계열사인 Harry Fox Agency, 그리고 미 작사·작곡가협회(Songwriters' Guild of America)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향후 서비스 유료화 이후 수익의 몇 퍼센트를 콘텐츠 소유자에게 지불할지는 언급이 없으나 지불할 로열티의 1/3을 음악 저작권 소유자들에게, 나머지 2/3는 음반업체에 지급하게 된다.

3) 미국의 음반제작을 위해서는 관련 단체들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음반취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유통되는 대부분 미국 음악의 취입권리를 통제하는 전미음악출판자협회(NMPA : National Music Publishers' Association)의 저작권료 징수기관인 Harry Fox Agency와 미 작사작곡가협회(Songwriters' Guild of America)가 있고, 공연에 대해서는 BMI Music Publishing가 저작권료 징수를 대행한다.

Analysis

최근 발표된 IDC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인터넷에서 음악을 다운로드해본 경험자중 유료 온라인 음악서비스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⁴⁾. IDC는 음악을 즐기는 데 있어서 무료 온라인서비스를 통한 다운로드와 MP3플레이어 등 휴대형미디어에의 저장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경험이 매우 다양해져 있는 시장에서 유료 온라인 음악 서비스들이 사용자 기반을 구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림 1] 유료 인터넷음악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자료: IDC(2001. 9)

따라서 점차 인터넷음악서비스가 대세가 될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복잡한 미디어와 내려받기의 어려움, 그리고 호환성이 결여된 초기 인터넷음악시장에서는 사용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유료 인터넷음악 서비스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CD를 구매해 듣는 것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쇼핑 및 사용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소수의 음반 레이블보다는 모든 레이블의 음반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해야 하며, 다운로드한 음악 파일을 PC에서 재생하는 데 국한되기보다는 다른 기기로 옮기거나 CD로 구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유연한 소비가 가능하기

4) 다만 광대역 인터넷사용자 중에서는 유료 인터넷음악 서비스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29%로 일반 인터넷이용자보다 높게 나왔다.